

갈라진 유럽...파리서 “팔과 연대” 베를린선 “유대인 지지”

파리 1만 5000명·런던 10만여명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멈추라”

유럽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놓고 지지 여부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AP와 로이터,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 추산 1만 5000명이 모여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에 가지자구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위대는 “가자 학살을 멈춰라”, “파리는 가자와 함께한다”, “프랑스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라”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일부는 레퍼블리크 광장 중앙에 있는 조각상에 올라가 빨강·초록·검정으로 이뤄진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이날 시위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프랑스 경찰이 수도 파리에서 허용한 첫 번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지난 19일 법원이 각 지역에서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관련 시위가 허가됐다.

영국 런던 도심에서도 전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진’이 열렸다. 경찰 추산 총 10만명이 참여해 한주 전보다 시위대 규모가 세 배로 늘었다.

이들은 하이드파크에서 총리실까지 행진하고, 피커딜리 서커스와 트래펄가 광장 등에 모여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22일 1만 2000명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 등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등을 외쳤다. 일부는 EU가 이스라엘의 가지자구 폭격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반유대주의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독일-이스라엘 협회, 주요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 5000명, 경찰 추산 1만명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여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멈추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었다.

연사로 나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며 “유대인과 관련 기관에 대한 공격 하나하나가 독일의 수치”라고 말했다.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하마스의 공격에 희생된 이스라엘인을 추모했다. 참가자들은 인질과 실종자들의 사진을 들고 인질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으며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레바논 국경 부근에 위치한 이스라엘 북부 키르얏 시모나 주민들이 22일(현지시간) 집을 쫓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충돌이 격화함에 따라 국경 인근 14개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방 6개국 정상 “이스라엘 자기 방어권 지지”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도 주문

미국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가지자구에 지상 전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서방 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백 영국 총리, 에

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소집으로 전화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이들 정상은 성명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식량·물·의료 서비스와 기타 자원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리스 신용등급 10년만에 ‘투자 적격’ 회복

10여년 전 국가채무 위기를 겪으며 신용등급이 급락했던 그리스 정부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았다. 반면, 자금 부족 위기에 처한 이집트는 정크(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S&P는 그리스에 대해 ‘BBB 마이너스(-)’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중 한 군데서 투자 등급으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등급 상향은 지난 6월 그리스에서 개혁 성향의 키리악오스 미토타키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뤄졌다.

미토타키스 총리는 기업 친화적 정책 유지를 약속했으며, 산불로 인한 추가 지출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황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P는 심각한 통화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 마이너스(-)’로 한단계 낮췄다. 이집트의 신용등급은 블리비아, 알콜라, 이라크 등과 같게 됐다. /연합뉴스

중남미 국가들, 美 이민정책 폐기·쿠바 일방적 제재 해제 촉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회의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12개국이 미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민자 정책 폐기와 쿠바 등에 대한 일방적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라호르나도와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일간지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남부 치아파스주 팔렌케에서 이민자 대책 논의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회의를 주재했다.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미겔 디아스카넬

(쿠바)·시오마라 카스트로(온두라스)·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등 4개국 대통령과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 등 정상이 참석했다. 엘살바도르·벨리즈·파나마·코스타리카·과테말라 장관급 인사도 자리했다.

12개국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목적지 국가”를 향해 “중남미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이주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일관되지 않은 일방적·선별적 대책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목적지 국가”란 이민자들이 출신지 국가를 떠나 최종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나라를 뜻한

다. 이날 성명은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 정상급들은 또 쿠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등 12개국은 또 “출신지·경유지·목적지 국가들이 이주민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포괄적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이민자 급증 문제는 두 나라에서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 대선 76% 개표 좌파 후보 깜짝 선두

10%포인트 앞서면 당선 확정

22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4분의 3정도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좌파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51) 후보가 깜짝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국(DINE)에 따르면 대선 투표 종료(오후 6시) 이후 곧바로 시작된 개표가 76% 이뤄진 가운데 마사 후보가 35.90%, 극우 성향 하비에르 밀레이(53) 후보

가 30.51%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시간 개표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는 않고, 선거 당국에서 일정한 시점에 개표 현황을 공표한다.

앞서 대선 향배를 예상할 수 있는 지난 8월의 예비선거(PASO)에서는 밀레이 후보가 29%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밀레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마사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2위를 기록했다. 제1 야권인 중도우파의 파트리시아 블리치(67) 후보는 23.61%를 득표해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최종 개표 결과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혹은 40% 이상 득표하고 2위 후보에 득표율이 10%포인트 앞서면 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오는 11월 19일에 결선 투표를 치른다.

한편, 아직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선 투표율은 74%대로 아르헨티나 선관위는 밝혔다. 이는 1983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권자는 3500여만명(인구 4600여만명)이었다. /연합뉴스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